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만드는 참된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605-1115

제1832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9년 3월 21일 (음력 2월 25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22(日)
흐리고 비 8/21℃	흐리고 비 13/15℃

News

- 전남 미분양 아파트 감소 ②
- 유방암 극복 앞장 '백일홍' ③
- 윤석민 4강전 선발 출격 ⑱

Entertainment

- 사랑에 빠진 남자 최재성 ⑦
- 중년女優 스크린 맹활약 ⑩

Wellbeing

- 봄맞이 효과적인 청소법 ⑤

Books

- 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 ⑧
-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 ⑨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내일 물의 날…구례 상사마을 '당몰샘'을 아십니까

소중한 물 나눠 마시니 천년동안 마르지 않은 샘

샘물 누구나 쓰도록 담장 허물어
가뭄에도 펑펑…이웃들 생명수로

1천년동안 끊임없이 맑은 물을 뿜어내며 주변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나눔과 생명의 샘'.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지자체간 물 분쟁 소식도 들려오지만 지리산 밑 한 동네에서 1천여 년을 이어온 마을 샘을 둘러싼 공생 문화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찾은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 '당몰샘'은 극심한 가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맑은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지리산 약초뿌리 녹은 물이 다 흘러든다'할 정도로 이름난 샘물은 현대의 과학기술로 검사해봐도 대장균 한 마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상사마을은 지난 1986년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 우리나라 제일의 장수마을로 손꼽혀 화제가 됐다. 샘물 탓인지 조선말기 유행한 호열자(콜레라)도 마을을 비켜갔다 한다.

상사마을이 각종 문헌을 통해 통일신라의 도선국사와 연관있는 것을 보면 역사는 1천여 년의 시공을 훌쩍 건너 뛴다.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우연히 이인(異人)을 만나 세상사를 물었더니 대답 대신 모래 위에 삼국도(三國圖)를 그려 고려통일의 징조를 암시해 주었다 해서 사도리(沙圖里)라는 마을이름이 유래됐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마을 형성에 필수적인 샘의 나이 또한 1천년은 넘었음직 하다.

애초 당몰샘을 소유했던 해주오씨 후손인 상사마을 오기수(74) 씨는 자신의 한옥을 '쌍산재'(雙山齋)라 이름짓고 샘 옆에 448자의 한자로 빼곡한 '사도(沙圖) 천년 사적비' 비문을 세웠다. 비문의 핵심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는 '장차수복 이하공분'(將此壽福 邇遐共分)이라는 문구다.

오 씨는 손가락으로 비문을 또박또박 짚어가며 나눔의 정신을 강조했다. "장차수복 이하공분은 '앞으로 건강과 복을 가까우나 멀거나 같이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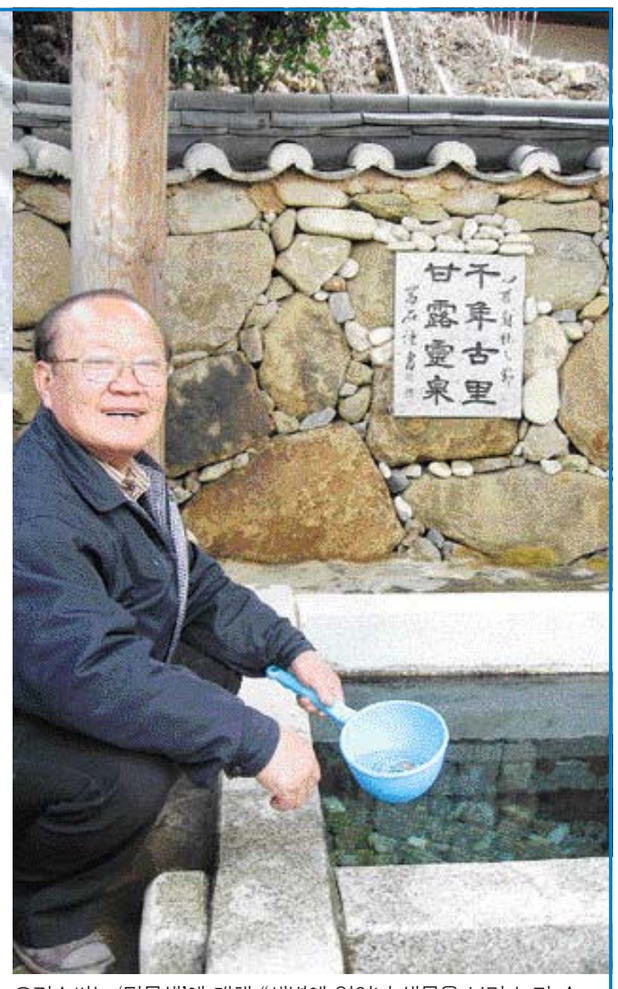
이를 실천하듯 처음엔 오씨 집 안마당에 있던 당몰샘은 지금 담장 바깥에 있다. 100~150년 전만 해도 해주 오씨의 집안에 있던 샘은 한학자였던 오씨의 증조부가 마을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와 물을 길어가는 것을 보고 "동네사람들과 같이 먹자"라며 담장을 샘 안쪽으로 들여 쌓아 누구나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였던 당몰샘물은 10여 년 전 마을 뒷산에 상수원을 마련해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설치되고 일부는 관정을 뚫어 이용도가 많이 떨어졌다. 대신 효험이 뛰어나다는 소문에 외지인들이 물을 뜨러 많이 찾아온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섣달 그믐날 샘가에 촛불을 켜고 쌀과 떡을 차려 제를 지내고, 정월 대보름에는 지신밟기를 하며 샘을 소중히 아끼고 있다.

오씨의 아들 경영(44) 씨는 "이러한 물 나눔정신은 할아버지의 '부자란 노송(老松) 그늘처럼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고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은 사람의 목숨을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헛되이 써서는 절대 안되고, 항상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오기수씨는 '당몰샘'에 대해 "새벽에 일어나 샘물을 보면 누가 손댈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샘 뒷면 벽에 '천년고리 감로영천'(千年古里 甘露靈泉)이라 새겨져 있다.

"내년 지방선거 前 행정체제 개편"

이달곤 행자 "내달 국가사무 지방 이양 청와대에 보고"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구성되고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된데 이어 20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와 관련, "올해 내 결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주시면 그런 방향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현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행정체제 개편을 반대하는데 이를 무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재정적인 통합에서 나오는 유형의 감소분 이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본 이론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배분 기능을 상당히 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가 2010년 정도까지 재개발, 임대주택 등 재배분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 인구 50만~100만명의 중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시가 구분돼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안 돼있어 도시의 구분과 체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 등의 사무를 맡은 점을 거론한 뒤 "올해 이 과제에 집중하겠다. 4월 초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해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행안부는 시·군 자율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월께 기초자치단체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뒤 5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이는 전국적인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에는 통합 대상 지자체 중 어느 한쪽 지자체가 반대를 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도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보조금 담당 공무원 3천명 물갈이

행안부, 2년 이상 근무자 전환 배치키로

최근 해남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